

竹川 朴光前の 文學 研究

김 대 현*

目 次

1. 머리말
2. 죽천의 詩에 대하여
3. 죽천의 賦에 대하여
4. 죽천의 記에 대하여
5. 맺음말

1. 머리말

죽천 박광전(1526-1597)은 16세기 호남의 문인이지만 아직 한국 문학사에서 거론된 적이 없고, 그의 문학과 관련된 논문이 한편도 쓰여지지 않았다. 돌이켜보면 16세기 호남에서는 한국문학사의 중심을 이룰 정도로 빛나는 문학적 성취가 있었다. 河西나 高峰을 중심으로 한 성리학적 유교문학의 발전, 浮休 善修나 逍遙 太能 등을 중심으로 한 불교문학의 발전, 俛仰亭과 松江을 중심으로 한 가시문학의 발전, 訥齋와 石川을 중심으로 한 한시문학의 발전, 거기에다가 思庵 이후 三唐派 시인의 모태가 되었던 점까지 생각하면 16세기 호남 문학이 얼마나 꽃피고 있었는지 알 수 있다.

그러한 16세기 호남의 한 가운데 죽천이 있다. 그 무렵의 문학사에서는 1526년 같은 해에 태어나 비슷한 길을 걸었던 懷齋 朴光玉(1526-1593)과 죽천을 함께 거론할 만 하다. 두 분 다 도학과 의리로 이름을 얻었으며,

* 전남대학교 국문학과 교수

임란을 맞이하여 적극적인 활동으로 구국의 전선에 뛰어들었다. 물론 회재의 문학에 대한 연구논문도 아직 없는 형편이다. 그렇지만 회재는 이 지역 문인들로서는 매우 드물게 금강산 기행과 관련된 시문을 많이 남기고 있어서, 문학적인 성과에 있어서도 주목할 만 한 인물이다. 그런데 회재는 300여 편이 넘는 시가 남아있는 반면에, 죽천은 겨우 12편의 시가 남겨져 있다. 아마 이런 점이 죽천의 문학을 연구하는데 큰 장애가 되는 것 같다.

죽천을 이해하기 위하여는 먼저 재미있게 쓰여진 죽천의 연보를 읽으면 그의 생애를 조금이나마 파악할 수 있다. 죽천은 전라남도 보성군 조양리, 지금의 조성면 용전리에서 태어나서 성장하였다. 연보에 의하면 9세 때 홍양(고홍)에 유배왔던 인재 홍섬에게 수학하였다고 한다. 21세 때인 1547년에는 송천의 문인이 되었다고 하였으니, 박산에 찾아가서 배웠을 것으로 생각한다.

그 후 보성 천봉산 대원사 등에서 강학을 하였고, 41세 때인 1566년에는 퇴계 이황에게 집지하고 학문에 더욱 힘쓰게 되었다. 그 후 미암 유희춘의 추천에 의하여 1571년 경기전 참봉을 시작으로 헌릉참봉 등의 벼슬을 하였고, 1580년부터 1589년까지 왕자사부, 함열현감, 회덕현감 등의 관직을 역임하였다. 그 후 임진왜란과 정유재란 시에는 적극적인 의병활동으로 구국의 전선에 뛰어들었다. 그리하여 우리에게 죽천은 문학인보다는 節義를 지닌 의병장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이다. 그의 연보는 여타 다른 문인들에 비하여 그 내용이 자세하여 정자천에서 해골을 잃어버린 이야기, 능주에서 기생의 시침을 거절한 이야기 등, 죽천의 성격을 알려주는 재미있는 일화들도 실려있다. 또한 지금 보성군의 미력면, 노동면, 문덕면, 곁백면 곳곳에 서원, 누정, 묘소 등 그의 유적이 남아있어서 그 생애를 살펴볼 수 있다.

죽천은 인재 홍섬, 퇴계 이황을 비롯하여 경향의 많은 문인들과 교류하였다. 호남의 문인들 가운데에는 석천 임억령, 송천 양응정, 미암 유

희춘, 우산 안방준 등과 깊은 교류를 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현재 자세한 관계를 알려주는 기록들은 거의 남아있지 않으며, 『미암일기』에 죽천에 대한 단편적인 기록이 10여건 남아있다. 또 『石川集』이나 『松川集』등에도 죽천 관련 기록이 거의 보이지 않아서, 牛山의 행장 기록이나 연보 이외에 이들 호남 문인과의 구체적 교류양상을 파악하기가 곤란하다.

당시 16세기 전반 士林派들은 사장의 학문보다는 도학의 학문을 더욱 강조하였다. 그런데 기묘사화 등의 사화를 거치면서 도학을 말하는 분위기가 상당히 위축되게 되었다. 그러한 점은 죽천의 연보나 행장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천은 도학의 학문에 힘썼다고 한다. 그러다보니, 과거 시험에 필요한 문학 공부 이외에는 문학작품의 창작에 큰 힘을 기울이지 않았다. 말하자면 죽천은 문장은 도학이 근본이 되어야한다는 성리학적 문학관, 다시 말하자면 사림파들의 기본적인 문학관에 충실하였던 것이다.

그렇지만 죽천의 문학관을 여러 종류의 작품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고, 새롭게 점검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여기에서는 죽천이 남긴 詩, 賦, 記 등의 순서로 그의 문학세계를 간단하게나마 살펴보도록 하겠다.

2. 죽천의 詩에 대하여

먼저 詩의 세계이다. 그의 시가 12편이 남아 있는데, 이는 그의 詩作品 가운데 대부분이 화재로 인하여 소실되고 극히 일부분이 남은 것이라고 알려져 있다. 그의 시는 문집에 일정한 순서없이 섞여 있지만, 이를 연보의 기사나 그 밖의 자료에 의하여 시대 순서에 따라 재배열하면 다음과 같다.

- 8세 「應親命」 2구
- 11세 「瀟湘夜雨圖」
- 21세 「坦腹東床」
- 20대 전반 「次金景秋觀水軒韻」, 추정
- 33세 「題宣廷達楚辭冊」
- 40대 「送南張甫」 3수, 추정
- 61세 「送梁君仲明赴居昌」
- 65세 「與門族展省水多院, 移坐廣灘川上, 述懷」 8수

이하 구체적인 연대미상의 시작품

- 「登南山和李生」 2구
- 「客中守歲次戴叔倫韻」
- 「思鄉」
- 「挽任花洞」

현재 남아있는 죽천의 시는 이상의 12편 21수이다. 가장 이른 8세 때의 작품은 부친이 道로 시작하여 爲로 끝나고, 爲로 시작하여 道로 끝나는 聯句를 지으라고 하니, ‘도는 천명이니 어찌 사람이 만든 것이라, 道自天命豈人爲’라는 구와 ‘한결같이 크게 이룰 것은 공자의 도이다. 爲一大成孔子道’라는 연구를 지었다. 이를 들은 부형이 크게 기이하게 생각하였다는 이야기가 행장이나 연보 등에 전하고 있다. 여러 작가들이 어렸을 적에 처음 지은 시들이 문집에 남아있는 경우가 있는데, 대개 경물을 읊는 일이 많다. 그런데 죽천은 이처럼 道學에 대한 시구가 남아 전하는 것으로 미루어, 그의 생애를 평가하는 후인들의 생각의 일단을 보여주고 있다.

그의 11세 작인 「瀟湘夜雨圖」는 전라감사가 보성군에 巡視할 때에 죽천을 불러서 짓게 한 시이다. 그때 감사는 비단 재주가 뛰어난 뿐만 아니라, 그 모습도 의젓하니 장차 儒宗이 될 것이라고 하였다고 한다. 죽천은

12세 무렵 『性理大全』을 구하여 읽고, 다음 해는 『中庸』을 읽었다.

죽천은 22세가 되던 해 松川의 문하에 들어간다. 그렇지만 현재 송천과 관련된 작품이 남아있지 않아, 그 모습을 알 수 없다. 다만 시 가운데 「次金景秋觀水軒韻」이 남아있는데, 이 시가 그 무렵의 작으로 생각된다. 왜냐하면 松川의 시 가운데 「次韻金景秋」가 있어서, 그 무렵 함께 생활하였음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김경추는 아마 요월정의 주인공 김경우와 관련이 있는 인물이 아닌가 생각한다.

30대의 작으로는 33세에 지은 「題宣廷達楚辭冊」이 있다. 문인 선정달이 초사를 공부하는데, 그 책표지에 써주었다는 시이다. ‘굴원의 초사를 배우려거든 먼저 굴원의 뜻을 찾아라’는 말로 시작되는 이 시는 죽천이 얼마나 詩意를 강조하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다. 말하자면 형식보다는 내용주의적인 관점을 지키고 있다.

그의 40대의 작으로 추정되는 것이 「送南張甫」이다. 죽천의 시 가운데 친구와 교류하는 대표적인 교유시이자 증별시라고 할 만 하다.

남장보 언기를 보내며 送南張甫彦紀 (호는 의봉(宜峯) 또는 고반(考槃))
○ 3수 중에 첫 수

풍계에서 만난 지 십 년 후	楓溪十載後
우연히 반년이나 어울렸네	偶得半年遊
교분이 친밀해 옛 약속에 따라	交親托久要
덕과 의를 새로이 얻었다네	德義新相收
그대의 견식은 매우 뛰어나	卓矣子所見
동료들을 일깨우고도 남았지	不但起輩流
어웅(魚熊)을 세밀히 변별하고	魚熊辨爭毫
동정(動靜)을 두루 길렀네	動靜養有周
뜻을 세워 변치 않음을 귀히 여기고	立志貴悠久
덕을 쌓아 경박함을 경계하였네	蓄德戒輕浮
남의 선을 보면 자기에서도 찾으려하니	見善若己出
바다 같은 도량 얼마나 아름다운가	海量何休休

간절히 나의 게으름을 일깨우고	切切起吾懶
병을 위해 약을 누차 보내왔네	對病藥屢投
나처럼 홀로 배우는 사람은	伊余獨學人
바닷가 한 모퉁이에서 방황하다가	踽踽海一隈
늘그막에 그댈 얻은 걸 기뻐하며	歲晚欣有得
향기를 맡으려 초구(椒邱)로 달려가네	襲馥馳椒邱
만가지 일을 스스로 다 할 수 없어	萬事不自保
또 삼상(參商) 같은 근심을 품노라니	又抱參商憂
가을 바람을 한없이 바라보며	秋風望不極
격렬히 금석(金石)의 심정을 노래하네	激烈金石謳 ¹⁾

죽천이 의봉을 벗으로 얻은 것을 참으로 기뻐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시이다. 죽천은 34세 의봉과 遇溪에서 함께 노닐었고, 이를 기문인 「遇溪記」에 남겨놓은 바 있다. 의봉은 그때 바위에 글을 썼던 사람이다. 이 시는 한 수가 22구나 되는 오언장편인데, ‘尤’ 자운으로 쓰여진 시이다. 죽천은 의봉에 대하여 많은 찬사를 보내고 있다. 그 가운데 의봉은 어웅(魚熊)을 세밀히 변별한다고 하였다. 물고기와 곰 발바닥을 변별하는데 힘쓴다는 것은 곧 義理와 利害의 관계를 말하는 『맹자(孟子)』에 연원을 두고 있다.

또 ‘늘그막에 그댈 얻은 걸 기뻐하며 향기를 맡으려 초구(椒邱)로 달려가네’라는 구절에서는 죽천이 의봉을 산초나무에 비유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屈原의 『楚辭』 「離騷」에 보면, “초구로 달려가 장차 머물러 쉬고 싶네.(馳椒邱, 且焉止息)”라고 했다. 것처럼 가까웠던 의봉, 그를 만나지 못했을까봐 삼상(參商)같은 걱정을 품는다고 하였다. 삼성(參星)과 상성(商星)은 동시에 두 별을 볼 수 없으므로, 친한 사람과 이별하여 만나지 못하는 비유로 쓰이는 말이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격렬히 금석(金石)의 심정을 노래하네’라고 읊고 있다.

한편 죽천은 唐詩도 두루 읽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客中守歲次戴

1) 『竹川集』, 韓國文集叢刊 39, 민족문화추진회, 307면, 이하 죽천집은 이 책을 대본으로 한다.

叔倫韻」은 나그네로 선달 그믐밤을 지새면서 대숙륜의 시에 차운하여 지은 시이다.

함께 강남 땅의 나그네 되니	同是江南客
오늘밤엔 마음이 한층 가까워지네	今宵意轉親
차츰 시간이 흘러감을 알았지만	漸知更逐漏
갑자기 늙어버렸음을 깨달았네	斗覺老隨人
고향 생각에 성긴 수염을 속이지만	鄉思歎疎鬢
타관살이 수심은 병든 몸을 얹매네	羈愁滯病身
뜨락의 매화는 옛 동산의 나무이니	庭梅故園樹
새벽이 오면 봄기운을 더듬어 보련다	趁曉欲探春 ²⁾

이 시는 戴叔倫의 「除夜宿石頭驛」시에 차운하여 지은 것으로, 대숙륜의 원시에 따라 읽어보아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 첫 구절도 ‘여관에서 누구와 함께 이야기할 수 있을까’라는 대숙륜의 시에, “함께 除夜의 밤을 맞이한다.”는 뜻이 들어가 있고, 마지막 구절도 “내일이면 또 봄을 만나야겠다.”는 대숙륜의 시에 죽천은 “새벽이 오면 봄기운을 더듬어보련다.”라고 말하고 있다.

서울에서 지은 것으로 「思鄉」이라는 시가 있다. 이 작품은 구체적인 연대는 미상이지만, 부친 진사공이 죽천의 52세에 운명하였으니 그 이전에 지어진 작품이다. 죽천이 그 이전에 서울에서 살았는지 불분명하지만, 42세 무렵에는 이미 동당초시에 합격을 하였으므로, 아마 3, 40대의 작품으로 여겨진다. 죽천의 작품 가운데서는 상당히 서정적인 분위기를 띠고 있는 작품이다.

고향 생각 (思鄉)

천리 멀리 부모를 떠나와 계책을 올리지 못하고 千里辭親未獻策

2) 『竹川集』, 307면

두 해나 나그네 되어 장안에 머물렀네
향기로운 창포 또한 강남 땅의 풀이니
봄바람 맡으며 고향 산천을 그리워한다

二年爲客在長安
芳蓀亦是江南草
共向春風戀故山

멀리 떨어져 있는데 부모님께 글월을 올리지도 못하였다. 그렇다고 잊어버린 것은 아니다. 나그네 되어 서울에 살다보니 그렇게 된 것이다. 그 때 어디선가 향기로운 창포의 꽃향기가 봄바람에 실려 불어오니, 그 향기를 맡으며 고향을 그리워하고 있다. 아주 평이한 듯 하면서도, 재미있게 쓰여진 시이다.

문집에는 그의 만년에 지어진 시들이 몇 편 남아있어서 흥미롭다. 그의 나이 60세가 넘어서는 「거창으로 부임하는 양중명 자정을 송별하며 / 送梁君仲明子徵赴居昌」라는 시를 쓴다.

백성들의 흠어진 마음을 부르니
화답하는 자 그 은혜를 따르네
말고삐 당겨 어사(御史)에게 알리면
칭송의 덕이 큰 비석에 새겨지리
이를 보는 자 곧 이마에 땀이 나고
몸이 움츠러 병 걸린 듯 하리라

要民倡支離
和者徇其私
叩馬聳御史
頌德刊雲螭
見此輒泚頰
蹙蹙如躬罹³⁾

고암은 소쇄옹 양산보의 아들이자, 하서의 사위이다. 죽천보다 서너살 연상인데, 거창으로 부임하여서 송별시를 쓴 것이다.

또 그의 나이 65세에 지어서 현전하는 가장 늦은 작품으로 추정되는 것이 「문중의 일가와 수다원을 성묘하고 광탄 냇가로 옮겨 앉아 회포를 적다 與門族展省水多院移坐廣灘川上述懷」라는 여덟 수로 된 작품이다. 그 첫 수와 마지막 수는 다음과 같다.

칠순 동안 세상에 무엇을 이루었던가

七旬於世竟何逢

3) 『竹川集』, 306면

흰머리로 봄 맞으니 슬픔만 복받치네
 사람은 나고 죽어 해마다 그리한데
 꽃은 피고 저도 언제나 그 가지라네

白首逢春老可悲
 人事存亡前後歲
 園花開落古今枝

전해온 충효를 잊지 못해 한탄하는데
 운수에 달린 공명을 생각인들 하라
 뒤따라 옛 선조의 가르침을 기술하려니
 감회가 붓을 감싸 쓰기가 어렵구나

傳家忠孝嗟無繼
 在數功名肯敢思
 追述昔時先祖教
 感懷繞筆寫難爲⁴⁾

이 시는 일가들과 함께 선조의 묘를 성묘하고 나서 광곡, 보성군 노동면의 냇가에 앉아서 지은 시이다. 성묘를 마치고 나서인지, 조상에 대한 생각이 간절하게 드러나 있다. 忠孝라는 말을 몇 번이나 사용하여, 그의 생각을 드러내주고 있다. 첫 시에서 七句 - 白首나 前後 - 古今등의 對를 사용하기도 하고, 뒤의 시에서는 忠孝 - 功名이라는 實字對가 잘 짜여져 있고 感懷의 결구가 이루어져 있다. 그 밖에도 이 시 가운데는 그의 사상을 잘 보여주는 대목도 적지 않다.

공명은 운수이니 내가 원하는 바 아니고
 충효를 가문에 전함이 나의 생각이라네

功名在數非吾願
 忠孝傳家是我思

이처럼 무엇보다 앞서 ‘忠孝傳家’가 그의 생각이라고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다. 그 밖의 시구에서도 詩句나 읊는 것이 부질없음을 드러내고 있기도 하다.

들면 효도하고 나면 공손함이 근본에 힘쓰는 일
 시구나 읊는 것은 지엽을 찾는 거라오

入孝出悌眞務本
 吟詩詠句是尋枝

죽천의 시는 모두 12편 밖에 남아있지 않아 그의 시문학을 온전하게

4) 『竹川集』, 308면

알 수가 없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남아있는 작품들이 어렸을 적부터, 3, 40대의 시들, 60대의 시들까지 골고루 남아있어서 그의 문학의 일단을 엿보게 해 준다.

그의 시는 문학적인 기교보다는 내용을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시의 내용으로는 교유시에서 만사에 이르기까지 여러 종류의 시가 남아있다. 교유시는 의봉 남언기를 송별하며 쓴, 세 수의 오언장편이 매우 주목할만한 작품이며, 만사는 화동 임백영에 대하여 쓴 칠언 32구의 장편이 주목된다. 따라서 남아있는 죽천 시 가운데서 주목할 만한 교유시가 대체로 장편으로 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3. 죽천의 賦에 대하여

죽천의 賦는 모두 17편이 남겨져 있다. 이는 그 무렵 16세기 호남 한문학 작가 가운데서는 가장 많은 작품을 남긴 것으로 기록될 만 하다. 賦를 다작한 놀재 박상이 12편, 하서 김인후가 13편의 작품을 남기고 있는데, 죽천은 17편의 부를 남기고 있기 때문이다. 賦는 과거의 중요한 시험과목이었으므로 죽천은 매우 열심히 부를 창작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의 부를 몇 가지로 나누어 보면, 먼저 심성수양에 대한 내용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작품으로 우선 「정심부(正心賦)」를 들 수 있는데, ‘정묘년(1567)에 동당시(東堂試)에 합격한 글’이라는 주가 붙어있다. 이 작품은 마음을 바로 하는 것에 대한 글이기에 심성수양에 관한 내용이다.

오직 사람의 한 마음이

움직임과 고요함의 근원과 妙理를 갖추고

헤아리기 어려운 정신의 작용을 드러내어

방촌(方寸: 사방 한 치의 마음)에서 주재하고

사물과 서로 대응한다네.

그러나 한결같이 흘러 움직이도록 방치해 둔다면

唯一心

該動靜之源卯

神明之不測

夫既主宰乎方寸

乃與事物而酬酢

然一向流動而無檢

정욕이 왕성해지는 흠이 있나니	未有不累於情勝
마음을 바로잡는 것을 귀히 여겨	是以正之之爲貴
반드시 안을 끈게 하여 밖에 대응해야 하네.	要內直而外應 ⁵⁾

대체로 16세기 사림파들은 沖庵이나 服齋처럼 심성수양에 대한 내용을 많이 다루고 있는데, 이는 그들의 도학사상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性理의 문제나 心性의 문제를 주요한 내용으로 다루고 있는 모습이 위의 작품에서도 확인된다. 16세기 호남 작가로서는 일찍이 미암 유희춘이 주자학의 문학적인 수용을 하고 있었는데, 죽천이 퇴계를 찾아간 것은 미암의 추천에 의한 것이었다. 따라서 주자학의 문학적 수용이 전승되었던 것은 당연한 결과일 것이다.

죽천의 작품 가운데는 이와 함께 「獨寢不愧衾賦」와 같은 아주 재미있는 작품도 있다. ‘홀로 있을 때나 누웠을 때도 이불에 대하여 부끄러움이 없어야 한다.’는 기발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작품의 끝 부분은 다음과 같다.

마침내 이불을 어루만지며 말하노라	遂撫衾而爲語曰
이불이여! 이불이여	衾兮衾兮
나는 그대를 엄한 스승으로 여기니	我以爲嚴師
엄하지 않은 듯하면서도 엄하게 하여	不嚴而嚴
나의 심사(心思)를 바로잡게나	正我心思
이불이여! 이불이여	衾兮衾兮
나는 그대를 두려운 벗으로 삼으니	我以爲畏友
두렵지 않은 듯 하면서도 두렵게 하여	不畏而畏
안으로 반성하여 조그만 흠도 없게 하게나	內省不疚
마음에 부끄러움이 없으면	不愧于心
그대에게 부끄럽지 않고	不愧于爾
그대에게 부끄러움이 없으면	不愧于爾
천지(天地)에 부끄럽지 않으리라	不愧天地 ⁶⁾

5) 『竹川集』, 296면

6) 죽천집, 299면

두 번째로 중국의 고사를 주로 다루면서 교훈을 제시하는 작품들이 많다. 「勇撤臯比賦」는 무진년(1568) 회시(會試)에 제 2등으로 합격한 글인데 “스승의 자리를 용기 있게 걸어 버린” 북송(北宋)의 유학자 장재(張載)의 고사를 설명한 글이다. 장재는 낙양(洛陽)에서 『周易』을 강의했는데 이정(二程)을 만나본 뒤에 곧장 강의를 그만두었다고 한다. 그러나 이 작품은 장횡거를 존경하여 쓴 것이다.

이런 부류에 속하는 것으로 「江漢賦」는 周의 역사를 다루고 있고, 「接漸賦」는 허둥지둥 쌀을 담갔다가 건져 가지고[接漸] 떠났다는 공자의 불우한 삶을 읊고 있다. 또 「立孤難賦」는 춘추전국시대의晋나라 두 식객의 이야기를 다루어서 충성스러운 인물을 그리고 있다. 이런 교훈적인 부류에는 학문의 중요성을 다루고 있는 「致思如掘井賦」나 「衣錦尙褻賦」 등도 들 수 있다.

세 번째로 역사적 소재를 사용하여 ‘사회 비판적’ 교훈을 다룬 내용들이다.

여기에 해당하는 작품으로는 「伴食宰相賦」, 「宮市賦」, 「鮑石亭賦」와 같은 작품을 들 수 있다.

「伴食宰相賦」는 당나라의 무능한 재상을 비난하는 글이다. 현종대의 姚宋은 명재상이었는데, 그 이후의 盧懷慎 등은 무능한 재상이었다. 이를 비난한 글로, 元次山の 「大唐中興頌」은 전조의 재상들에 대하여 은근히 기롱의 뜻을 담고 있다고 하였는데, 이 글에서는 구체적으로 무능한 고관을 질타하고 있다.

「宮市賦」는 당나라 덕종이 궁중에 시장을 만들어놓고 백성들의 재물을 긁어모은 일을 비난하는 글이다. 작품의 말미에는 임금에게 충간하는 글이 다음과 같이 담겨져 있기도 하다.

바라건대 거룩한 주상께서 이를 거울삼아
처음부터 욕심이 넘치는 것을 막기에 힘쓰고

願聖上之鑑此
務窒欲於濫觴

기(岐: 주나라의 발상지) 땅을 다스리던 옛 정치를 본받아 遼治岐之舊政
백성들을 살피서 그들의 재물을 간직하게 하소서. 使民稅而顯藏⁷⁾

「鮑石亭賦」는 우리나라의 고사를 소재로 한 작품이다. 작품의 내용 속에 '월성(月城)을 지나며 옛 일을 슬피하는데, 겨울비만 처량하게 내리치는구나.'라는 말로 미루어 죽천이 경주지방을 여행하면서 그 감회를 적은 글이라고 하겠다.

그 작품의 말미에는 '결사(結辭)를 지어 노래하련다.'고 하면서 "계림(鷄林)의 애수에 젖은 구름, 왕국의 기운이 다했도다. 천년의 옥 피리[玉笛] 소리도, 막혀서 소리가 나지 않네. 포석정 가에 누우니, 봄 풀만 푸르구나. 보는 것마다 감회가 일어나, 이 심정을 다 쏟지 못하겠네."라고 하였다.

죽천의 賦는 이처럼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 위에서 들었던 대로 심성수양에 대한 내용, 중국의 고사를 다루면서 교훈적인 내용을 다루거나, 사회비판적인 내용을 다루는 것들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다. 그 대신 인생의 애환이나 자연에 대한 내용이 크게 드러나 있지 않다. 다만 도연명의 「歸去來辭」와 관련되어 그의 삶을 다룬 「醉石賦」와 같은 작품은 주목할 만하다. 돌처럼 완고하게 굳어진 지조를, 이제의 수양산 고사리같은 만고의 기풍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다.

전체적으로 말하자면 죽천의 부 작품은 역사적인 고사를 이용하면서 교훈적인 내용을 다루는 것이 특색이라고 할 수 있다.

7) 『竹川集』, 303면

4. 죽천의 記에 대하여

죽천의 문학 가운데 그 당시 가장 주목을 받았던 작품은 아마도 記문학이었던 것 같다. 그러한 내용이 그의 연보에 나타나 있기 때문이다. 연보에는 남언기가 훗날 죽천의 기문을 송천 양응정에게 보여주니, 그가 「遇溪記」에 대하여 크게 칭송하였다는 기록이 남아있다. 또 농암 김창협이 다음처럼 말하였다고 작품의 뒤에 덧붙여 있기도 하다.

김농암이 말하였다. 좋은 문장이다, 좋은 문장이야. 그 말이 진실로 아름답구나. 능히 한 계곡의 맑음을 그렸으니 오래도록 사람들의 눈에 비칠 것이다. 그의 道學 가운데서 나온 말이 아니라면, 어떻게 문장이 이처럼 아름다울 수가 있단 말인가.⁸⁾

현재 죽천은 「遇溪記」와 「冬柏亭記」라는 두 편의 기문을 남기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遇溪記」는 그의 대표적인 작품이라고 할 만하다. 잘 알려진대로 姚鼐의 『古文辭類纂』에 따르면, 雜記類라고 분류되어 있는 기는 大小事를 기록하는 글이다. 현재 남아있는 記文 가운데서는 대체로 樓亭記와 遊記 등이 중요한 문학작품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遇溪記」는 그 가운데 遊記에 속하고, 「冬柏亭記」는 樓亭記에 속한다. 현재 遊記는 遊山記가 상당히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 「遇溪記」는 넓은 의미의 山水遊記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이 글은 柳子厚의 愚溪와 그 발음이 같아서 우선 우리의 눈을 끈다. 그렇지만 유자후는 요내가 그 제목에 따라 이미 언급하였듯이 「愚溪詩序」라고 이름을 붙인 序文의 형태로 남겨져 있다. 따라서 유자후의 글보다는 훨씬 방대한 記文의 형태로 되어있다.

작품은 1559년 기미년 명종 14년, 죽천의 나이 34세 때의 일이다. 30

8) 『竹川集』, 344면; 金農巖曰, 好文章, 好文章. 其辭眞實華麗, 能使一溪清致, 照耀百代人目, 自非道學中流出, 那得文質之若是炳煥哉

대 중반이면 아직은 어린 나이이다. 대부분 40대가 되어서야 누정을 건축하고 원림을 조영하였던 호남지역의 전래에 비추어, 상당히 일찍부터 원림의식을 지니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竹川은 「遇溪記」에 跋을 쓴 宜峯 南彦紀와 함께 보성 대원사 남쪽의 수 백보 쯤의 구역의 계곡을 찾아가 유람하고, 이름 붙이고, 원림을 조영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그곳은 큰 시냇물이 절 남쪽 천봉산으로부터 흐르고, 작은 시내가 절에서 흘러 내려 두 물이 합쳐지는 구역이다. 원림 의식은 자연적인 地形이나 地物에 이름을 붙이는 것으로 시작한다. 그것을 알 수 있는 부분이 작품에도 나타나 있다.

기문에는 ‘이에 그 중에서 표시할 만한 곳 스무 군데를 골라 이름을 지었는데, 어떤 곳은 모양에 따라 짓고 어떤 것은 德으로 지어 각각 의미를 부여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그 스무 곳은 簣蹊(운혜 - 왕대가 출렁이는 오솔길)부터 시작하고 있다. 백락천의 「養竹記」에 따라 거름을 주고 대밭을 가꾸었다. 다음으로 禮亭이라 하였으니, 오리나무 정자와 같은 풍경을 연출하였기 때문이다. 작가는 계속하여 矩亭, 泔亭 등의 이름을 붙여나간다. 마지막으로 이름 붙인 곳이 ‘遇溪’이다. 기문에는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연못이 비류암으로부터 산도에 이르기까지 길이는 몇 십 발, 넓이는 두어 발 쯤 되는데, 세탁도 할 만하고 낚시질도 할 만 하여 헤엄도 칠만하고, 자맥질도 할 만 하여 하나로 부르기에는 족하지 않다. 이를 합하여 遇溪라 이름 붙이니 곧 龜巖에 새긴 것이다.⁹⁾

이렇게 우계라고 이름을 붙인 까닭에 대하여 죽천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9) 『竹川集』, 343면; 潭自飛流巖至散島, 長幾十丈, 濶可數丈, 可濯可釣, 可游可泳, 不一而足矣. 合而名之曰遇溪, 卽龜巖之所刻者也.

만난다[遇] 함은 무엇을 뜻하는가? 적막한 물가에서 무료할 때에 흐르는 물을 따라 걷다보면 우연히 시냇가에 이르러 이른바 뛰어난 경치를 얻게 되니 이는 사람이 시내를 만난[人遇溪] 것이다. 처음 천지가 열려 사물이 생길 때에 이미 지형이 뛰어난 곳을 갖춰 놓았건만 광채를 감추고 숨긴 지 몇 해 만에 비로소 우리들에게 발견되니, 이는 시내가 사람을 만난[溪遇人] 것이다.¹⁰⁾

이처럼 땅과 사람이 만난다는 것은 얼마나 재미있는 표현인가. 유자후는 ‘愚溪’에서 이름도 모두 ‘愚’자를 넣어서 지었고, 그 우계가 세상에 이름지 못하니 비록 옥을 보여 어리석다 하더라도 가한 것이라고 하였다. 그리하여 자신이 그 시내를 독차지하여 ‘愚’로 이름을 붙였다고 하였다. 그에 비하면 죽천의 우계는 훨씬 더 자연과 조화롭게 어울려 있다. 운혜부터 우계에 이르기까지 스무 군데의 지형에 아름다운 이름을 붙이고 있기 때문이다.

작품의 전체적인 구성은 序 - 本 - 結의 3단 구조를 잘 지키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서론에서는 우계를 찾아가는데 시간적, 공간적 배경을 설명하고 있고, 본론 부분은 아름다운 20경에 대하여 이름을 붙이는 과정을 그리고 있고, 마지막으로 결론 부분은 議論으로써 清心養氣를 위한 일임을 밝히고 있다.

이로 미루어 보면 죽천의 「遇溪記」는 16세기 호남문학에서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일찍이 河西는 「平泉莊記」를 남기고 있는데, 이는 이덕유의 평천장에 대하여 우리나라의 平泉莊이다. 하서는 평천장에 대한 시말을 적고 있지만, 그 분량 면에서 山水遊記라고 하기엔 좀 부족하며 오히려 누정기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하서의 원림의식과 비교될 만 한데, 이는 하서가 「遇溪記」의 또 다른 주인공 南彥紀와 가깝게 어울려 지냈다는 것으로 알 수 있다. 또 면양정이나 송강도 산수유기가 남아있지 않아서, 죽천의 이 작품은 그만큼 값진 것이라고 할 수

10) 『竹川集』, 343면; 其謂之遇者, 何也. 寂寞之濱, 無聊之際, 步隨流水, 偶到溪頭, 得所謂奇勝者, 是人遇溪也. 子丑之初, 融結之始, 已具形勝, 埋光鏤彩者幾年, 而始發於吾儕, 是溪遇人也.

있다.

필자는 보성의 大原寺 근처 계곡을 ‘遇溪’라 하고, 그 곳에 원림을 조영하였다는 것을 이 작품을 보고서야 알게 되었다. 대원사는 현재 티벳 박물관을 비롯하여 대단히 재미있게 사찰 원림이 가꾸어져 있는데, 아마 그 전통이 이어져 온 것이 아닌가 생각하기도 한다.

5. 맺음말

이상으로 죽천 선생의 문학을 간단하게나마 살펴보았다. 16세기 중 후반을 살다 간 그는 이제 문학사의 한 페이지를 차지하여야 된다고 생각한다. 남아있는 시들로 미루어 그의 시의 내용은 贈別詩에서 哭挽詩에 이르기까지 여러 종류의 시가 남아있어서 그의 시세계를 살피는데 도움이 되고 있다. 그가 교유하며 지은 시는 대개 장편으로 쓰여졌으며, 그는 대체로 시의 기교보다는 유교적이고 성리학적인 내용을 중시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렇지만 작품이 너무 적게 남은 게 아쉽기만 하다.

죽천의 賦와 記는 당시 16세기 호남문학에서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어서, 위에 말한 문학사의 중요 작품들로 기록될 만 하다. 부 작품으로는 가장 많은 분량, 그리고 매우 드문 山水遊記를 남기고 있기 때문이다. 앞에서 살펴 본대로 그의 부는 심성수양에 대한 내용, 중국의 고사를 다루면서 교훈적인 삶을 제시하는 내용, 나아가 사회비판적인 모습도 지니고 있어서 그의 작품들 가운데서도 가장 폭넓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 가운데 심성수양에 대한 내용은 주자학의 문학적인 수용과 관련되어 퇴계, 미암 등의 문학적 특성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이제 죽천의 문학연구는 시작에 불과하므로, 앞으로 남겨져 있는 과제가 많다. 죽천의 여타 산문들과 비교 검토하여 그의 문학 작품을 좀 더

세밀하게 읽어야 할 것이고, 큰 문학적 성취를 이룬 『遇溪記』와 같은 단일 작품에 대한 집중적인 연구가 이어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참고문헌

- 『竹川集』, 韓國文集叢刊 39, 민족문화추진회
『退溪集』, 韓國文集叢刊 30, 31, 민족문화추진회
『河西全集』, 韓國文集叢刊 33, 민족문화추진회
『眉巖集』, 韓國文集叢刊 34, 민족문화추진회
『眉巖日記』 번역본, 담양향토문화연구회, 1993.
국역 『懷齋集』, 동양학연구원, 1994.

투고일 2002. 12.20 심사시작일 2003. 1.6 심사완료일 2003. 1.18

*Abstract***The Study of Juk-Cheon Pak kwang-Jeon's Literature**

Kim, Dea-hyeon

Juk-Cheon Bak Kwang-Jeon(竹川 朴光前: 1526-1597); a writer in Ho-Nam in the sixteenth century, has never been studied in Korean literature, but his literary work can be confirmed and newly investigated through Si(詩; poetry), Bu(賦; poetical prose), Gi(記; a narrative) that he left.

There are his 12 works left and they have got different aspects from Cheng- Byeoul-Si(贈別詩) to Man-Si(挽詩). Normally, the poetry that he wrote in association with other people were long pieces and he usually tended to put an importance on the content of Sung Confucianism(性理學) rather than on their technical skills.

Since his Bu and Gi were placed on an eminent position even in the sixteenth century, his works deserve to be dealt as masterpieces in the history of literature. He has left some Sansu Yugi(山水遊記) which are very rare and a great number of Bu(賦). In general, his Bu consists of three parts ; the content about mind training, that of instructive life shown by Chinese ancient happenings and that of social criticism. Among them, the content of mind training is related to the literary acceptance of Chu-Ja Hak(朱子學), so that it can be valued like Toe-Gye's(退溪) and Mi-Am's(眉巖). Specially Juk-Cheon has a close relationship with Toe-Gye Yi-Hwang(退溪 李滉) as he met Toe-Gye's(退溪) through Mi-Am's(眉巖) introduction .

U-Gae Gi(遇界記) is his great work that gives him a very high literary achievement and it is a well-written Sansu Yugi(山水遊記) which has received so much compliment. He, who lived in the mid and late sixteenth century, deserves to occupy a page of Korean literature for his valuable works.

Keyword

Juk-Cheon Bak Kwang-Jeon(竹川 朴光前, Writer in Ho-Nam, The sixteenth century, the literary acceptance of Chu-ja Hak(朱子學的文學), Toe-Gye Yi-Hwang(退溪 李滉), U-Gae Gi(遇界記)

竹川 朴光前의 文學 研究

김 대 현

죽천 박광전(1526-1597)은 16세기 호남의 문인이지만 아직 한국 문학사에서 거론된 적이 없다. 그러나 그가 남긴 詩, 賦, 記 등을 통하여 그의 문학 세계를 확인할 수 있고, 새롭게 점검할 수 있다.

남아있는 시는 12편인데 그 내용은 贈別詩에서 哭挽詩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모습을 지니고 있다. 교유하며 지은 시는 대개 장편으로 쓰여졌으며, 그는 대체로 시의 기교보다는 유교적이고 성리학적인 내용을 중시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죽천의 賦와 記는 당시 16세기 호남문학에서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어서, 위에 말한 문학사의 중요 작품들로 기록될 만 하다. 부 작품으로는 가장 많은 분량, 그리고 매우 드문 山水遊記를 남기고 있기 때문이다. 그의 부는 대개 심성수양에 대한 내용, 중국의 고사를 다루면서 교훈적인 삶을 제시하는 내용, 나아가 사회비판적인 모습 등 세 가지 면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그 가운데 심성수양에 대한 내용은 주자학의 문학적인 수용과 관련되어 퇴계, 미암 등의 문학과 비교할 만 하다. 죽천은 미암 유희춘의 안내로 퇴계 이황을 만났기에 학문적 관계가 매우 밀접하다.

죽천의 문학 가운데 가장 큰 문학적 성취를 이룬 작품은 「遇溪記」이다. 여러 평자들이 칭찬하였듯이, 매우 짜임새 있는 산수 유기이다. 16세기 중후반을 살다 간 그는 이러한 중요한 작품을 남기고 있어서, 문학사의 한 페이지를 차지할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죽천 박광전, 죽천집, 퇴계 이황, 미암 유희춘, 미암일기, 의봉 남언기, 16세기, 호남문인, 우계기, 주자학적 문학.